

6만 약사의 현상황공유를 위한 배포자료

1. 신자유주의와 FTA, 그리고 의약품 슈퍼판매

현재 MB정권은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로 결론난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국민의 종북으로서의 정부라는 역할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FTA가 그 법령내용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대기중입니다. 최근들어 부쩍 늘어난 다국적기업의 의약품광고 등은 결국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과 FTA 시행 이후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속셈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2. 광고시장과 약 권하는 사회

결국 대기업자본이 마음대로 시장을 주무르려면, 전문가의 정확한 조언 보다는 선정적 무차별적인 선전을 통해서 의약품을 마구 사먹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편의 경우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이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 약국외 판매의 종착점 '의료민영화'

동네약국의 몰락 -> 국민불편 -> '선택분업'(의사가 약국외 판매를 외치는 기초) -> 의료민영화 의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의약품 슈퍼판매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MB정권 역시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한 의료민영화와 영리법인 허용, 대자본의 의료시장 지배를 위해서 일반인의 병의원 및 약국 개설허용을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여론은 정말 국민의 목소리인가?

현재 의약품 슈퍼판매 주장세력은 신자유주의자인 정부와 의협관련자들, 그리고 시딘단체의 등뒤에 숨어있는 대자본들 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국민여론이 조작되고 있습니다.

5. 지금까지의 대한약사회의 방식으로서는 안됩니다.

일부의 정치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지금까지의 대한약사회의 대처방식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6. 대한약사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하고, 그 깃발 아래 모일 때

대약도 잘한 일이 없지만 그것은 회원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약이 이 지경까지 사태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기 보다는 다가가야 합니다. 보고있기 보다는 견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대약의 복지부동과 함께 우리 스스로의 복지부동도 비판해야 합니다.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7. 9월 정기국회가 관건이나구요? 아닙니다.

다들 9월 정기국회가 자유판매약 도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으로서 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8월 중순 정도면 모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니 바로 지금이 우리가 나서서 움직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고 궁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